

놀이·배움이 만나는 하루의 풍경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 문화기관들이 전시와 과학, 공연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전시 체험부터 과학 놀이, 국악극 공연까지 온가족 함께 즐기는 참여형 콘텐츠 한자리

화 체험을 함께 운영한다. 얼굴과 손등에 그림을 그리는 '페이스 페인팅', 직접 그린 그림으로 소품을 만드는 '페브릭 달력 제작', 풍선을 다양한 형태로 만드는 '풍선 아트'도 운영된다. 참여자들은 창작 과정에 참여하며 감각과 표현의 폭을 넓히고, 어린이 갤러리 전시를 함께 관람하며 체험의 의미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5월2-5일 박물관 정원과 도자문화관, 어린이박물관 일원에서 '어린이 도자 축제'를 연다.

축제 기간에는 마칭밴드 퍼레이드와 동춘서커스 공연을 시작으로 '춧불음악회', '캐릭터 퍼레이드'가 이어지며 전통 연희극과 버블벌룬쇼, 마임 공연 등이 곳곳에서 펼쳐진다.

도자 액막이 명대 만들기, 도자문화관 전시 유물을 모티브로 한 '땡글땡' 제작, 미니 향아리 꽃꽂이 등 체험과 다례 교육, 물레 성형 체험 등 교육도 진행된다.

도자기 장터와 푸드트럭, 페이스 페인팅 등 부대행사와 함께 전시 연계 스탬프 체험과 사진 공모전, SNS 이벤트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을 위한 도자 관련 강연도 함께 열려 도자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예정이다.

국립광주과학관도 '2026 어린이날 특별행사 과학관에서 재밌게 노는 날'을 연다.

행사는 5월5-7일 3일간 상설전시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어린이날 당일에는 공연·체험·이벤트 등 총9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과학과 마술, 풍선아트를 결합한 '와우! 풍선아트 쇼'가 마련된다. 공연은 오후 2시에 진행되며, 당일 현장에서 예약할 수 있다.

참여 프로그램으로는 동물 캐릭터와 사진 촬영 후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동물친구와 사진 찍고 선물받자!', 얼굴에 그림을 그려주는 '웃음 한가득! 페이스 페인팅'이 진행된다.

또 '알록달록 여름 컬러링 씬캡', '빙글빙글 봄 바람개비' 등 만들기 체험이 운영되며 상설 전시관 이용객은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족 관람객을 위한 즉석사진 촬영 이벤트와 SNS 참여 이벤트, 전시관 곳곳에 숨겨진 단서를 찾아 퀴즈를 해결하는 '코드명 0505: 사라진 과학보물을 찾아라'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어린이날인 5일 오후 3시 전악당에서 어린이 국악극 '무당호랑이 쿵이'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작품은 백두산 호랑이 쿵이의 여정을 그린 어린이 국악극으로, 국립



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이 참여해 제작했다.

노래와 춤이 어우러진 무대는 어린이극 연출가 추천종이 연출을 맡았으며 작곡가 박경훈과 작가 최원오, 무대디자이너 김이환 등이 참여했다. 이 작품은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잇고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갖는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공연에 앞서 오후 1시부터 전악당 야외 마당에서는 인생네컷 촬영과 민속놀이 체험 등 부대 행사가 진행돼 가족 단위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최명진 기자



ACC재단, '들락 어린이 기획전'

인기 상품 최대 50% 가격 할인

어린이날 한정 선물세트 출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5월1일부터 31일까지 ACC 내 문화상품점(들락,키즈들락)과 누리집에서 '들락 어린이 기획전'을 진행한다.

재단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 어린이 인기 상품을 30-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ACC를 찾은 가족 단위 방문객은 평소 눈여겨본 문화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재단은 어린이날을 기념해 'ACC 키즈 기프트세트'를 새롭게 선보인다. 크로스백과 다양한 활용품으로 구성된 어린이날 선물로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형 행사도 풍성하다. 재단은 '어린이가 족문화축제 하우편 12'와 연계해 ▲두근두근 행운권 ▲아시아 그림책 나눔 이벤트 ▲SNS 댓글 참여 행사 등을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병행 운영한다. /최명진 기자

드영미술관 청년작가 발굴

내달 2일까지 전시지원 공모

드영미술관이 역량 있는 신진 청년작가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2026 청년작가 전시지원 공모'를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이번 공모는 젊고 실험적인 조형 언어를 가진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미술계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드영미술관 설립 취지에 따라 지역 기반 청년 작가의 성장과 창작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연구·홍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모 기간은 오는 5월2일까지이며, 지원 자격은 ▲광주 출생·거주 또는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 ▲만 40세(1986년생) 이하 청년 작가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작가 1명에게는 드영미술관 전시 공간에서의 개인전 개최와 함께 창작 지원금이 제공된다. 전시는 오는 7월24일부터 8월30일까지 진행되며 모집 분야는 회화, 조각, 설치, 미디어 등 시각예술 전 분야다. /최명진 기자

푸른길 달리며 버터 만드는 '이색 러닝' 눈길

동구문화관광재단 '동명동 버터런' 성료

광주 동구 동명동 골목과 푸른길, 광주천 일원이 '달리며 버터를 만드는' 이색 체험 공간으로 변신했다.

동구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문창현)은 지난 28일 오후 7시 동명동 여행자의 집(ZIP)을 중심으로 러너 30여명이 참여한 '동명동 버터런'을 운영했다.

'동명동 버터런'은 재단 기획 프로그램 '취향

가이드 ZIP'의 일환으로 마련된 참여형 러닝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가벼운 사전 운동을 마친 뒤 동명동 여행자의 집에서 출발해 동명동 골목길과 푸른길 산책로, 광주천을 잇는 약 5km 코스를 달렸다.

러너들은 도심 속 명소를 함께 지나며 동구의 일상적인 풍경을 체험했다. 특히 생크림이 담긴 용기를 들고 달리며 진동을 통해 버터를 만드는 '버터런 챌린지'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완주 후 간단한 다과와 함께 직접 만든 버터



를 나누며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확산되고 있는 러닝 문화와 체험형 콘텐츠 흐름을 반영한 도심형 관광 콘텐츠로, 참가자들로부터 재참여 의사를 이끌어냈다. /최명진 기자

문창현 대표이사는 "동명동 버터런은 참여형 콘텐츠에 지역의 장소성과 체험 요소를 더한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여행자의 집을 중심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관광 콘텐츠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명동 여행자의 집(ZIP)은 관광안내를 넘어 체험과 교류가 이뤄지는 도심형 여행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다. '취향 가이드 ZIP'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취향을 탐색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월데이 클래스 프로그램으로, 브런치 클래스와 애프터워크 클래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연중 운영 중이다. /최명진 기자

CBS 라디오

아침 시사의 새로운 중심

박성태의 뉴스쇼

월~금 07:10~09:00

FM 98.1 MHz

CBS 표준FM

CBS RAINBOW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YouTube